

어법 기출문제 연습 - 정답 및 해설

[수능 기출문제]

1. ㉠'홍건이'는 틀린 표현. '홍건히'가 맞는 표현. 답 ㉠
2. '어쨌든'이 바른 표기이다. 답 ㉠
3. ㉠설것이→설거지, ㉡찌게→찌개, ㉢텔레비전→텔레비전, ㉣계시든→계시던 답 ㉢
4. 다리다 : (옷이나 천 등을 다리미로) 눌러서 문지름으로써 구김살을 펴지게 하다. 달이다 : (한약 따위를) 물에 넣고 끓여서 우려나오게 하다. 답 ㉠
5. 같은 한자가 들어 있어 의미상의 공통점은 있으나 분명한 의미 구별이 있는 한자어들이다. '식별 : 알아서 구별함', '분별 : 서로 다른 것을 따로따로 가름 또는 돌아가는 형편을 헤아려서 알' 따라서 '식별'과 '구별'은 서로 바꾸어 사용해야 함. ㉠'금방 : 이제 곧'의 의미로 미래 시제를, '방금 : 바로 이제'의 의미로 과거 시제를 지닌다. ㉡'구조 : 구하여 줌', '구원 : 도와 건져 줌 또는 인류를 죄악과 고통에서 건져 냄' ㉢'당황 : 놀라거나 다급하여 정신이 어리둥절함(어쩔 줄을 모름)', '황당 : 거칠고 허황함' ㉣'변환 : 달라져서 바뀜', '변천 : 변하여 바뀜' 답 ㉤
6. '칫솔질'은 '치(齒)라는 한자와 '솔질'이라는 순 우리말이 합쳐진 것이며, 뒷말의 첫소리 '솔'이 된소리 '솔'로 발음되므로 제30항 2-(1)에 해당한다. 답 ㉢
7. '삼촌'은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 경우에 해당한다. 답 ㉣
8. ㄱ과 ㄴ의 문장이 연결된다면 ㄴ의 '시늉'은 '공부를 하는 척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시늉'의 대상은 '장사꾼'의 행동이 아니라 공부이다. ㉤'조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부추김'이란 의미를 나타낸다. 답 ㉢
9. '㉡그쪽'은 아버지의 책을 부탁받는 당사자이다. '㉢당신' 역시 같은 대상이다. ㉠ '㉠내'는 '㉡나'와 같은 1인칭 대명사이다. '㉠내'는 '가'라는 주격 조사 앞에 쓰이고, '㉡나'는 은/는 앞에 쓰인다. '내'가 '나의'의 줄인 말로 쓰이는 경우는 '내 물건'과 같은 사례에서이다. ㉢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책을 부탁하고 있는 '나'를 포함한 '나의 형제자매들'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나'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그쪽'은 내가 부탁하고 있는 당사자이므로 우리에게 포함되지 않는다. ㉣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할 때 대명사를 쓰는 것은 맞다. 하지만 반드시 대명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대상이 혼동되지 않고 분명할 때만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아버지'를 '당신'이란 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도 있지만, 현재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바꾸어 쓸 필요는 없다. ㉤ '㉤당신'은 높임의 재귀대명사로 적절하게 쓰였다. '자기'는 '아버지'와 같은 명백한 높임의 대상에게는 쓸 수 없다. 답 ㉡
10. '미연(未然)'은 원칙적으로 '미연에' 꼴로 쓰여 '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때'를 의미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결합되는 조사의 종류'의 측면에서 볼 때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극비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어휘이다. 답 ㉠

11. <보기>에 제시된 ‘-되다¹’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능동인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더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되다²’는 일부의 명사나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서 해당하는 명사와 용언의 어근, 부사가 의미하는 상태나 성질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바뀌거나 변화한다는 의미를 더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⑤

12. 제19항의 붙임에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를 토대로 ⑤의 ‘마개’를 분석해 보면 ‘막+애⇒마개’가 된 것이기에 어간에 ‘애’가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마개’는 원래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1항 [붙임]의 사례와 같은 이유로 해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① ‘-이’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이며, 의미 또한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았기에 원형을 밝혀 ‘먹이’로 적는 것이다. ② 장신구로서의 ‘목걸이’ 또한 ‘-이’가 결합되었고,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았기에 원형을 밝혀 적었다. ③ ‘마중’에서 ‘-옹’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이면서 동시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이 결합되어 품사가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④ ‘같이’는 ‘-이’나 ‘-음’이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며 어간의 뜻도 유지하고 있기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답 ⑤

13. <보기 2>의 a에서 [시켜]는 ‘시켜’ 혹은 ‘식혀’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이므로 <보기1>의 ㄴ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기 2>의 b에서 ‘이연패’는 ‘두 번 연속해서 지다[二連敗]’의 의미와 ‘두 번 연속해서 우승하다[二連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이므로 <보기1>의 ㄱ에 해당한다. <보기 2>의 c에서 ‘가슴이 아프다’는 ‘신체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라는 의미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아프다’가 중심 의미(신체적 가슴이 아프다)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정신적 마음이 아프다)를 가지는 경우이므로 <보기1>의 ㄷ에 해당한다. 답 ③

14. ④의 ‘먹읍시다’라는 청유 표현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밥 좀 먹읍시다’에서 밥을 먹을 사람은 ‘화자’이며, 밥 먹는 행위는 청자에게 기대되지 않는다. 행위의 주체가 화자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④라고 할 수 있다.

- ① 청자인 ‘떠드는 친구들’만 조용히 하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
- ② 청자인 아이만 약을 먹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
- ③ 화자와 화자의 친구인 청자 모두가 영화를 보러 가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
- ⑤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반 친구 전체가 토의하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 답 ④

15. ① 주어의 누락 : 우리가 한글과 세계의 여러 문자들을 비교해 볼 때, (주어 누락 - 한글이) 매우 조 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② 어미의 누락 : 그가 오락에 몰두하는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어미 누락 - 라기)보다는 현재의 괴로 움을 잠시나마 잊어 보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④ 주어의 누락과 일본어식 표현 : (우리는) 과학적 인간관과 인식론(이) 인간과 인식에 관한 유일한 가정 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한 나라의 영화 정책은 당연히 자기 나라 영화의 보호와 진흥을 목적(에 맞추 어 집행되어야 한다.) 답 ③

16. ② 의미의 중복 : 오늘도 어김없이 바람 부는 날인데도 노인은 외출할 (생각을 하였다).

③ 목적어의 누락 : 그녀는 자신이 이기적인 줄을 알면서도 (이기적이라는 말을) 남에게서는 무척 듣 기 싫어한다.

④ 조사의 오용 : 회원 각자(가) 현재의 자기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⑤ 어휘의 오용 : 그의 얼굴에 나타난 감정은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었다. 답 ①

17. ㉠에는 '이'를 점잖게 이르는 말인 '치아'를 사용해야 하며, ㉡에서도 '나이' 대신에 연세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사장님께서'는 이중 높임. ㉣ '과반수 이상'은 의미의 중복, '과'가 '이상'의 의미를 지님. ㉤ '막연한'이 아니라 '막역한'임. ㉥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안됨.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로 고쳐야 함. 답 ㉣

18. ㉠ 조사와 서술어의 오용 : 사회 복지란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안락하게 사는 상태를 말한다.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됨 : 우리가 인체를 탐구하는 것은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 외국어투의 잘못된 피동 표현 : 미술 작품은 그 표현 형식과 내용(을 이해해야 바르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적절한 열거 : 모든 개인은 환경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답 ㉤

19. '회의'와 '말씀'은 높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계시다'가 아니라 간접높임에 해당하는 '있으시다'로 표현해야 한다. ㉡ 또한 철수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오시래'가 아니라 '오라셔(오라고 하셔)'가 맞는 표현. ㉢ '가르쳐'가 아니라 '가리켜'가 옳은 표현. ㉣ '서울역전 앞'은 의미의 중복. ㉤ '외식 먹으러' 역시 의미의 중복. ㉥ '너네'는 '너희'로, '너'는 '네'로 고쳐야 함. 답 ㉡

20. 수나 분량의 경우에는 '늘리다', 길이나 넓이의 경우에는 '늘이다'를 사용하므로 ㉣는 올바른 표현이다. ㉠은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어'라고 써야 하고, ㉡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은 '돈이 너무 적어'로 써야 하며 ㉤는 '김장을 직접 담가'로 써야 한다. 답 ㉣

[모의수능 기출문제]

21. ㉠과 ㉡의 사례에서 접받침 ‘ㄹㅂ’의 발음은 다음 이어지는 자음과 상관없이 각각 같게 나고 있다.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답 ⑤

22. 부르다²는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의 뜻이므로, 이 단어의 사동사 ‘불리다’는 ‘(속이) 팍 찬 느낌이 들게 하다.’의 뜻, 즉 ‘(배가) 부르게 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의 예문으로는 ③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불릴(부르게 할) 수는 없었다.’가 적절하다. 답 ③

① 부르다¹ ㉡의 피동사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② 부르다¹ ㉠의 피동사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④ 불다²의 사동사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⑤ 불다¹의 사동사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23. <보기>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함께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진 어미’에 대한 설명이다. ㉡의 ‘-올래’는 ‘장차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데 쓰는 종결 어미’이다. 즉,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지만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는 기능은 없다. 답 ②

① -대(-나대) : 전해 들음 ③ -네 : 직접 경험 ④ -올걸 : 추측 ⑤ -겠- : 추측

24. ㄴ(뒷북을 치다)과 ㅁ(무릎을 치다)의 서술어는 둘 다 ‘치다’이다. 그런데 ㄴ에서는 의미 쏠림이 발생하고 ㅁ에서는 의미 쏠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로 볼 때, 서술어 ‘치다’는 의미 쏠림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용 표현의 서술어를 보면 의미 쏠림이 발생할지 알 수 있다고 한 ㉡는 적절하지 않다. 답 ②

③ ‘바가지를 씌우다’의 ‘바가지(터무니없이 많은 요금이나 물건 값)’와 ‘바가지를 긁다’의 ‘바가지(아내가 남편에게 늘어놓는 불평이나 불만의 소리)’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며, 의미 쏠림 이후에도 이러한 의미 차이는 유지된다. ④ ㄹ의 ㉠은 ‘닭 잡아먹고(A) 오리발을 내밀다(B)’이며 ㉡는 ‘오리발을 내밀다’이다. 요소의 생략 과정에서 ‘오리발을 내밀다(B)’만 남았으므로 ‘B’로 의미 쏠림이 일어났다고 본 것은 적절한 이해에 해당한다.

25. <보기>의 첫 문장에 따르면 ‘인용 발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남에게 전달하는 말’이다. 그런데 ㉠의 경우 자신의 기쁨을 청자에게 보고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여기에 쓰인 ‘-답니다’의 형태는 인용 발화의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 ‘-답니다’는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 주는 합쇼체의 종결 어미’이며, 나머지 인용 발화를 의미하는 형식 ‘-답니다’는 ‘-다고 합니다’의 준말 형태이다. 답 ①

26. ㉠의 ‘글썩’이 ㉡의 ‘글썩요’로 ‘-요’가 첨가된 것은 발화의 청자가 아들에서 아버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여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답 ③

① ㉠의 ‘뭐’는 다음에 이어지는 ‘명인’에 대해서 이의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여러 말 할 것 없’이 수용하거나 긍정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② ㉡은 상대방을 의식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바라는 발화이다. ④ ㉠의 ‘음’ 앞뒤에 반점(.)이 있다는 것은 독립어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의 ‘아니요’는 부정하는 의미이고, ‘아니 ~ 될 일이나’의 ‘아니’는 놀라움의 의미이므로 둘은 의미가 같지 않다.

27. <보기>에는 파생어의 형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파생어는 어근에 접미사를 덧붙여 만들기도 하고, 접미사 뒤에 어근을 이어서 만들기도 한다. ‘믿음’은 ‘믿다’의 ‘믿-’이라는 동사 어근에 ‘-음’이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의 ‘달리기’가 ‘달리다’라는 동사의 어근인 ‘달리-’ 뒤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기’를 덧붙여 만든 말이므로 ‘믿음’과 그 구성이 같다. 답 ⑤

① ‘길다’라는 형용사의 어근 ‘길-’에 접미사 ‘-이’가 붙음. ② ‘기쁘다’라는 형용사의 어근 ‘기쁘-’에 명사형 접미사 ‘-ㅁ’이 붙음. ③ ‘털’이라는 명사에 접미사 ‘-보’가 붙음. ④ ‘오뎅하다’라는 형용사의 어근 ‘오뎅-’에 접미사 ‘-이’가 붙음

28. ⑤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의 경우 어미 앞의 ‘빌리다’의 주어도 ‘동수’이고, 어미 뒤의 ‘예약을 하다’의 주어도 ‘동수’이다. ㄹ의 경우 어미 앞의 ‘만나다’의 주어도 ‘영희’이고, 어미 뒤의 ‘돌아가다’의 주어도 ‘영희’이다. ㄷ과 ㄹ의 두 문장은 어미 앞뒤의 주어가 모두 같은 문장들이다. ⑤의 논리에 따르면, 어미 앞뒤의 주어가 같으면 ‘-러’를 선택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러’가 쓰인 ㄱ, ㄴ 두 문장 역시 어미 앞뒤의 주어가 같으므로 ⑤의 선택 기준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답] ⑤

① ㄴ에서 ‘-려고’, ‘-고자’가 쓰이지 않은 것은 ㄴ에 쓰인 문장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 ㄴ의 문장은 구어 상황의 청유형 문장이다. ② ㄷ에서 ‘-러’만 쓰이지 않고 있는데, 책을 빌릴 의도만 있고 빌리기 위한 ‘이동’의 의미 요소는 담겨 있지 않다. ㄱ의 문장처럼 이동의 의미 요소가 담긴 ‘빌리러 가다’가 ‘-러’의 자연스러운 문장임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있는 탐구이다. ③ ㄱ은 평서문에서, ㄹ은 부정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미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ㄱ은 어미가 문장 중간에, ㄹ은 문장 끝부분에 어미가 쓰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

29. 조사 ‘는’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에서 ‘할아버지에게’에 ‘는’을 써야 하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할아버지’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는’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①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격 조사 ‘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앞 문장에서 할아버지를 소개했으므로 ‘는’을 써야 자연스럽다. ‘가’를 사용하면 앞 문장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않게 된다. ③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한다는 사실과 대조된다. ⑤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애교가 많지도 않다는 점에서 ‘말썽꾸러기 돼지’는 다른 동물들과 대조된다.

30. <보기>에 제시된 사례들은 종결어미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 사례들을 분석하면 종결어미가 다양한 문법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실제 발화 상황에서 이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①은 적절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제시된 종결 어미들 중 문장의 과거 · 현재 · 미래와 같은 시제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답] ①

② ‘똑똑하다고’의 ‘-고’, ‘가느냐’의 ‘-가’는 문장 성분을 표시해 주는 조사로 종결어미 뒤에 사용되었다. ③ ‘그치겠다’의 ‘-다’는 진술, ‘그치겠니?’의 ‘-니?’는 의문, ‘그치겠구나!’의 ‘-구나!’는 감탄의 의도를 나타낸다. ④ ‘듣습니까?’의 ‘-습니까?’, ‘듣소?’의 ‘-소?’는 발화 상대의 지위나 연령에 따른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상대높임법을 위한 어미이다. ⑤ ‘앉아라’의 ‘-아라’는 명령형 종결 어미로 ‘가다’와 ‘가다’로 끝나는 동사, ‘오다’와 ‘오다’로 끝나는 동사를 제외하고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동사 어간 뒤에 붙으며, ‘먹어라’의 ‘-어라’ 역시 명령형 종결 어미로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동사 어간 뒤에 붙는다.

31.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과, 사전에 실릴 때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뜻풀이 앞에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동사를 제시하며 그 뜻풀이와 동사가 쓰이는 구조가 잘 연결되었는지를 평가하라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⑤이다. ‘여기다’의 뜻풀이도 적절하며, ‘여기다’가 쓰이는 구조에서 필요한 성분인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표시하는 조사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 ⑤

① ‘깎다’의 뜻풀이는 ‘젓혀서 벌리다’가 아니라 ‘바닥에 퍼놓다’이다. ② ‘스치다’의 뜻풀이는 ‘세계 닿거나 마주치다’가 아니라 ‘서로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다’이다. ③ ‘말기다’의 뜻풀이는 적절하나, 쓰이는 구조에 대한 표시로는 ‘...이 ...을’이 아니라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표시하는 ‘...이 ...에게 ...을’이 적절하다. ④ ‘푸다’의 뜻풀이는 적절하나, 쓰이는 구조에 대한 표시로는 ‘...이 ...에서’가 아니라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표시하는 ‘...이 ...에서 ...을’이 적절하다.

32. <보기 1>은 ‘-마는’과 ‘-만은’의 문법적 성질 차이를 밝힌 것이고, <보기2>는 ‘-마는’과 ‘-만은’을 실제 문장에 적용한 사례이다. <보기1>을 통해 ‘-마는’의 경우 종결어미 뒤에 붙으며, ‘-만은’은 어미, 체언, 조사에 다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보기 2>에 적용했을 때 빈 칸에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경우는 ‘-마는’의 앞에 종결어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 문법에서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종류로는 동사에 평서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가 있고, 형용사에는 평서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가 있다. 그러므로 <보기2>의 ㉓ ~ ㉕ 중 그 앞에 종결 어미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찾으려면 된다. ㉖의 경우, ‘오늘은 그냥 간다’의 ‘간다’에는 평서형 종결어미‘-는다’가 사용되었으므로 ‘-마는’을 넣을 수 있다. 또 ㉕의 ‘되겠느냐’ 역시 ‘-느냐’라는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뒤에 ‘-마는’을 넣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는’이 들어갈 것은 ㉖와 ㉕라고 할 수 있다. [답] ④

① ㉓의 경우, ‘가서’의 ‘-서’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연결어미이므로 ‘-마는’을 넣을 수 없다. ③ ㉔의 경우, ‘땀한 가지’의 ‘가지’는 명사이므로, ‘-마는’이 아니라 ‘-만은’이 들어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33.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세 개이다. 필수적 문장 성분이란 누락되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없게 되는 성분이다. 따라서 ㄴ에서 필수적 문장 성분을 찾으려면 주어인 ‘학생들이’와 목적어인 ‘점심’ 그리고 서술어인 ‘먹는다’이다. 그러나 ‘식당에서’라는 부사어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니다. 이 성분은 문장의 의미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 문장의 문법적 성립 여부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답] ②

34. [조건] 1로부터 ㉑과 ㉒은 -답²에 해당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조건] 2에서 -답¹은 단어보다 더 큰 단위에 결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제시된 단위가 ‘싸움에서 이긴 장군’으로 이는 명사 ‘장군’과 이를 수식하는 관형사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관형사절 + 명사]+-답다’의 구조를 ㉑과 ㉒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예]에서 ㉑, ㉒, ㉓이다. 그리고 [조건] 3에서 -답¹은 자격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역시 ㉑, ㉒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답¹에는 ㉑, ㉒, ㉓이 -답²에는 ㉕, ㉖이 해당된다. [답] ④

35. <보기>는 동일한 대명사가 상황에 따라서 2인칭과 3인칭으로 쓰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①의 ‘저희’이다. 가.에 사용된 ‘저희’는 1인칭인 ‘우리’의 낮춤말이다. 나.에 사용된 ‘저희’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이다. [답] ①

[학력평가 기출문제]

36. '온다'는 모두 동사로 사용되어 '폼사 통용'에 적용되는 사례로 볼 수 없다. 답 ③
 ①의 '가겠다고'를 꾸며 주는 '아니'는 부사, 첫머리에 오는 '아니!'는 감탄사 ②의 '대로'와 ④의 '만큼'은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면 의존명사, 체언 다음에 붙여 쓰면 조사, ⑤의 '다섯'은 조사가 붙으면 수사, 체언을 꾸며 주면 수관형사
37. ①의 '몇 일'은 '며칠'로, ②의 '오랜동안'은 '오랫동안'으로, '오랫만에'는 '오랜만에'로, ③의 '부비며'는 '비비며'로, ④의 '밀어부쳐'는 '밀어붙여'로 써야 한다. [답] ⑤
38. ㄴ의 높임 대상은 '살림'이고, ㄷ의 높임 대상은 '작은아버지'이다. [답] ④
39. 한 주체가 둘 이상의 동작을 할 때에 그 동작의 '나열'이나 '선후'를 나타내려면 '-고'나 '-고서'를 서야 하고, 둘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려면 '-며'나 '-면서'를 써야 한다. ㄹ은 세 이상의 동작을 나열하는 경우인데, 놀고 공부하면서 잠을 자는 동작을 나열한 것인지 동시에 하는 것을 서술한 것은 아니다. 이때의 '-며'는 '-고'가 잇달아 나오는 것을 꺼려서 사용한 경우이지, 동시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답] ⑤
40. ㉠은 합성명사가 형성될 때, A와 B 요소의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이며 단지 각각의 의미가 합쳐졌을 뿐이다. 즉, A(논)와 B(발)가 결합하여 AB(논발)가 될 때 어느 쪽에도 의미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단순한 의미의 결합만 나타난다. '오누이'는 '오라비'와 '누이'가 결합한 경우이며, '비바람'도 '비'와 '바람'의 단순한 의미의 결합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은 A(불)와 B(호령)가 결합하면 XB(불호령)가 되는데 한 쪽(불)에서만 의미 변화가 나타난 경우이며, '칼질', '벼락부자'가 이에 해당한다. ㉢은 이전에 각각 가지고 있던 의미와는 다른 제3의 의미가 생겨난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인데 '쥐머느리'가 이에 해당한다. '돌부처'는 이미 합성어 형성이 이루어진 형태가 비유의 의미로 쓰이다가 이것이 개념적 의미로 자리잡은 경우이다. [답] ④
41. ②~⑤는 각각의 문장이 속한 문맥에 따라 동작의 주체가 ㉠과 같이 달라질 수 있으나, ①은 언제나 '다정'이 직접 동작을 실현해야 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 ①
42. <보기 1>의 내용을 보면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고,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다. <보기 2>의 ㄴ에서 '잠1'은 서술성이 없고 '잠2'는 서술성이 있다. 그러므로 '잠1'의 '-ㅁ'은 접미사이고, '잠2'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다. [답] ②
43. ㉠은 접근의 의미를 지니지만 ㉡은 '있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려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답] ④
44. '오랜만' : '오래간만'의 준말이므로 '오래간'과 '만'이 결합한 명사, '만' :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답] ③
 ① '-르결' :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결' : '것'과 '을'의 준말로 의존명사. ② '-르게' :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게' : '것이'의 준말로 의존명사. ④ '-는데' :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데' :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⑤ '-니바' :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바' :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45. ①은 어떤 일을 버젓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반듯하게'가 아니라 '번듯하게'를 써야 한다. [답] ①

46. ㄷ의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㉓에서 이를 '말하는 사람의 기대'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답] ㉓

①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의지와 관련이 있다. ②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④ '14초 이내로 달리지 못하는 것'은 능력에 해당한다. ⑤ '폭설'은 외부 상황에 해당한다.

47. '-롭다'의 경우 '평화', '자유' 등의 자립 형태소와 결합하였다. [답] ㉔

48. ㉑의 '좁'은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간곡한 뜻을 더하는 말'로 '정도나 분량이 적게'의 뜻인 '조금'과 바꿔 쓸 수 없다. [답] ㉑

49. 발다¹의 의미는 이 단어군의 대표적인 뜻과 함께 파생적 의미가 있고, 또한 발다², 발다³, 발다⁴와 같은 동음이의어들이 있고 그것들의 뜻이 다양하게 있다. '물웅덩이도 점점 발아'의 '발아'는 물웅덩이에 물이 말라붙는 것을 말하므로 ㉑에 해당한다. '애가 발고'의 '발고'는, 모내기를 하지 못해서 애가 몹시 타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므로 ㉒에 해당하며, '천장이 발은'의 '발은'은 천장의 높이가 낮다는 의미이므로 ㉓에 해당한다. 그리고 '술을 발을'의 '발을'은 술을 거를 때 쓰는 말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답] ㉑

50. '던진다, 온다, 잔다'는 '받침 없는 동사 어간' 뒤에 '-나다'가 쓰인 경우이고, '묻다, 운다, 만든다'는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나다'가 쓰인 경우이다. '웃으신다, 감으신다, 막으신다'는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 '-나다'가 쓰인 경우이고, '웃는다, 감는다, 막는다'는 받침 있는 동사의 어간 뒤에 '-는다'가 쓰인 경우이다. [답] ㉑

51.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라는 문장에서는 '-시'가 쓰였으므로 주체(주어)가 화자보다 높고, '-습니다'가 쓰였으므로 청자가 화자보다 높다. '동생이 운동을 했습니다'라는 문장에서는 '-시'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화자가 주체(주어)보다 높고, '-습니다'가 쓰였으므로 청자가 화자보다 높다. 따라서 ㉐와 ㉑의 분석이 옳다. [답] ㉑